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5, pp.389-399
https://doi.org/10.29212/mh.2025..135.38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 · 25전쟁 제75주년 국제학술회의]

「6 · 25전쟁과 아시아-새로운 자료와 연구-」 참관기

김상규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1. 들어가며

"저는 학생들에게 가끔 313전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 학술대회에서 1부 사회를 맡은 국방대학교 허남성 명예교수가 한 말이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시작된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까지 3년 하고도 1개월, 그리고 3일 동안 벌어졌다는 특징을 따서 한 말이었다. 3년 1개월 3일간 벌어진 이 전쟁은 오랫동안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존재했다. 그 명칭만 보더라도 그렇다. 한국사회에서는 '6 · 25사변', '6 · 25남침', 등 여러 명칭이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6 · 25전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전쟁은 북한에게는

www.kci.go.kr

‘조국해방전쟁’이며 미국에게는 ‘한국전쟁(korean war)’이고, 중국에게는 ‘항미원조전쟁’이었다. 명칭이 다양하다는 의미는 이 전쟁이 아직 까지 끝나지 않은 만큼 복잡한 전쟁이라는 것을 말한다.

전투의 포성이 멈춘지는 오래되었다. 하지만 단지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벌어진 전쟁은 지금에도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2025년은 6 · 25전쟁이 발발된지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주지하다시피, 6 · 25전쟁은 남과 북의 전쟁만이 아니라 주변국 그리고 UN이 직간접적으로 관계한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6 · 25전쟁의 이해와 인식을 더 넓히기 위해서는 주변국이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6 · 25전쟁에 대한 ‘새로운 자료와 연구’는 더 필요한 상황이다.

www.kci.go.kr

2. 새로운 자료와 연구의 장 : 2025년 6 · 25전쟁 제75주년 국제학술회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전쟁기념사업회, 국방대학교, 육군사관학교와 공동으로 6 · 25전쟁 제75주년 국제학술회의 「6 · 25전쟁과 아시아-새로운 자료와 연구-」를 개최했다. 오성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의 환영사,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및 박영준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본격적으로 학술회의가 진행되었다. 본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군내 · 외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원이 참가하였다.

본 학술회의에서는 국내외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는 〈표 1〉에서 알 수 있듯, 한 · 중 · 일 4명의 발표자의 발표와 4명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표 1〉 2025년 6 · 25전쟁 제75주년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토론자

시간	내용	진행자
13:30~14:00	국민의례	사회 : 황수현(군사편찬연구소)
	환영사	오성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축사	백승주(전쟁기념사업회장) 박영준(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세션	**발표자**	**토론자**
사회	허남성(국방대학교 명예교수)	
발표1 14:30~15:10	중국사 관점에서 본 한국전쟁-지역 전쟁동원을 중심으로 천황강(중국군사과학원)	한상준(아주대학교)

www.kci.go.kr

발표2 15:10~15:50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정전구상과 동북아 질서 내 한국군의 역할 손경호(국방대학교)	나종남(육군사관학교)
사회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발표3 16:20~17:00	한국전쟁과 일본 외무성의 인식 나가사와 유코(와세다 대학교)	김유석(전쟁기념사업회)
발표4 17:00~17:40	ATIS와 중공군 포로신문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추양(중국군사과학원)

첫 번째 발표는 중국군사과학원 천촹강 대교의 「중국사 관점에서 본 6·25전쟁 : 지역에 대한 전쟁 동원을 중심으로」였다. 이 발표는 중국에서 문헌 자료의 새로운 발굴에 따른 연구의 변화에 그리고 지역별, 계층별 전쟁동원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중국에서의 6·25[6·25전쟁]에 관한 사료의 발굴과 연구범위의 확장이었다. 발표자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초기 군사역사연구가 중심이 되었으나 최근 정치, 문화, 외교, 사회, 인물, 국제관계, 매체선전 등으로 분야가 확장되어갔다고 한다. 특히 발표자가 중점적으로 발표한 분야는 6·25전쟁 기간 동안 중국 내의 전쟁동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이다. 발표자는 라요닝지역, 상하이시, 이창시의 사례를 들어서 지역에 따른 6·25전쟁의 동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했다. 라요닝 지역은 한반도와 가까운 만큼 병참기지 역할을 했다고 한다. 랴오닝 지역 내에서도 246만명이 동원되었고 동원계층은 개인 자영업자, 미취업자 - 사기업 - 공공기관 순으로 동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상하이시의 경우 전선의 의복과 긴급물자의 공급선으로 설정되었으며 이창의 경우 '전방지원센터'를 마련하여 부대와 물자의 이동을 지원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동원에 참가한 계층에 관한 분석과 동원선전에 관

www.kci.go.kr

한 내용이었다. 발표자는 동원에 참가한 계층 중 광저우 상공업계, 화교의 참여, 소수민족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특이한 것은 동원선전에 관한 것이었다. 당연히 중국이 참여했다라는 생각으로 중국내 동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주제였다. 발표자에 따르면 중국 내에도 6 · 25전쟁의 참여에 관한 선전이 필요했고 표어와 슬로건, 신문, 만화, 공연작품 등으로 6 · 25전쟁에 관한 동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연구성과의 진행과 중국내 동원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동원선전'이 슬로건, 신문, 만화, 연극 등으로 진행된 내용과 맞는 이미지 자료 등이 추가되었으면 하는 점이 아쉬웠다. 또한 중국 내 일부 지역의 사례가 제시되었지만 전반적인 동원의 추이와 내용 등이 좀 더 포괄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중국의 전쟁동원에 대한 파악을 하는데 의의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한다.

www.kci.go.kr

두 번째 발표는 국방대 손경호 교수의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정전구상과 동북아 질서 내 한국군의 역할’이었다. 발표자가 주목한 지점은 정전협정을 전후하여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인사들이 인식에 반영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여러 정전구상 가운데 한국군을 어떻게 설정했는지가 주된 분석대상이었다. 발표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보고서를 세밀히 분석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발표자에 따르면 중국군이 개입한 것은 미국이 가장 뼈아프게 경험한 사건이었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참전 이후 상황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았으나, 판단이 크게 어긋났다는 것이었다. 애초에 한반도의 통일을 목표로 삼았던 미국은 이후 정전을 구상하게 되었다. 거기에 소련을 통한 물자지원 이후 중국군의 전력이 개선되었다는 점 역시 미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다고 한다. 발표자는 NSC157/1, NSC167, NSC170을 각각 분석하여 미국의 한반도 구상의 변화 과정을 분석했다. 필자에 따르면 제한전쟁을 계획했던 트루먼 행정부와 달리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신속히 정전을 달성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정전협정 체결을 통해 정치회담이 개시되자 중립 통일을 구상했다고 한다. 하지만 논의가 지속이 되면서 중립 통일방안과 현실적인 현상 유지가 절충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군 증강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었다고 한다. 발표자에 따르면 미국의 정전 구상 문서들은 한국군 건설의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NSC 154/1이 기존에 미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지상군 20개 사단과 적절한 해군과 공군을 건설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던 반면 통일된 중립 국가인 한국을 위한 한국군의 목표는 수치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정전 구상에서 한국군에 부여된 역할은 ‘자체적인 안정 유지‘로 규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세 번째 발표는 일본 와세다대학교 나가사와 유코 교수의 「한

www.kci.go.kr

국전쟁과 일본 외무성의 인식 - 휴전의 영향을 중심으로」였다. 발표자는 일본의 6·25전쟁에 관한 1차 사료의 발굴과 자료에 기반한 연구가 아직도 미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기존연구에서는 일본의 역할분석에서 일본의 전쟁특수, 후방지원 등의 '기능'에 한정하여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발표자의 문제의식은 일본의 휴전 협상과 관련된 인식, 외교적 관여라는 점에 주목한다. 발표자에 따르면 일본은 유엔 비회원국이라 정식적으로 휴전협정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물자지원과 행정조정 등을 통해 "재국제화(再国際化)"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발표자는 휴전협정을 기점으로 크게 대일강화조약 체결, 휴전협정을 들며 일본 외무성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우선 대일강화조약 전의 사항이다. 발표자에 따르면 대일 강화조약 체결 이전 일본의 상황을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점령 하였지만 6·25전쟁을 통해 국제정치에 재개입을 시도하며 '독립국'으로서 발언권을 모색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휴전협상 참여의지와 외교전략에는 '발언권의 모색'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쟁이 종료되면 전쟁특수가 감소하고, 이에따라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상실할 수 도[수도] 있다는 조바심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 당시 일본은 미국의 정치평론가 월터 리프먼 등에 주목하여 일본에 관여에 유리한 논조를 모아서 국제여론의 형성에 신경을 쓴 것이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일본의 입장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발표자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의 미래에 대한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재건에 대해 전쟁 특수의 감소로 인한 경제의 악영향을 완화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유엔비회원국이라는 현실, 국제정치 논의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에서 '외교적 무력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

www.kci.go.kr

러한 현실에서 일본 외무성은 일본의 위치를 '무기고'로 상정하고 있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화 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방 진영의 생산 및 지원기지로 삼으려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 발표자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 외무성이 비판적으로 해석한 용어로 '무기고'를 들고 있었다. 무기고로서 부담을 지는 만큼 발언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함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에 따르면 일본 외교사료의 조사분석 결과, 일본 외무성은 대일 강화조약 체결과 한국전쟁의 휴전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정치회담 참여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정치회담 참여와 휴전협정 체결 후 국제무대에의 복귀 실현을 위해, 일본 외무성은 강화조약 체결 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총리 겸 외무대신으로부터 외무대신을 승계한 오카자키 카츠오(岡崎勝男)를 중심으로, 주미대사, 유엔대사, 주중대사를 중심으로 정보수집과 조율을 진행하면서 유엔한국재건단(UNKRA) 총재와 협상을 거듭하며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었다.

최근 일본의 6·25전쟁에서의 역할에 관해서 다시금 번역서들이 출판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지적한 대로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일본의 후방지원, 전쟁특수가 주된 논의였다. 이번의 발표처럼 일본 외무성의 외교적인 입장 변화를 감안하면 앞으로 일본 정부 하 각 성청의 대응과 입장에 대해서도, 그것이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도 자료가 밝혀지거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분야가 되리라 생각한다.

www.kci.go.kr

마지막 발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상호 선임연구원이 「ATIS와 중공군 포로신문」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연합국번역통역국(ATIS)가 시행한 중공군 포로신문에 관한 보고서, 포로신문조서의 종류와 체계, 중공군 포로신문관과 획득정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발표자는 6 · 25전쟁 연구의 미개척지로 노획문서와 포로신문에 대한 기구, 인물에 대한 분야를 제시했다. 발표자는 이제까지 미국이나 공산국(북한 및 중국)의 포로정책, 포로대우와 같은 포로관리와 정전회담 직전의 포로교환, 반공포로석방과 그 영향, 중립국포로송환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로수용소에서 면담 등 포로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하여 활용했는지, 그리고 포로의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 판별문제 등 실제 포로관리로부터 얻어진 군사정보와 그 대책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표자는 ATIS에 대한 분석과 연구, 그중 실제 포로와 접촉했던 기구와 인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ww.kci.go.kr

우선 제시한 내용은 6·25전쟁기 ATIS와 포로신문 보고서에 대한 것이었다. 발표자는 ATIS의 창설부터 요원의 훈련방법, 규모, 신문조서의 번역, 출판, 보고서의 현황을 제시했다. 그리고 6·25전쟁에 파견된 ATIS전선부대(ADVATIS)의 파견과 노획문서의 입수, 제8238부대, 극동군사령부 군정보대, 500군정보대 등으로의 편제개편과정도 설명했다.

다음으로 발표자가 제시한 내용은 ATIS가 제시한 포로신문조서의 종류와 체제였다. 발표자에 따르면 포로신문조서는 야전에서 공산군포로, 탈영병, 피난 및 등을 신문한 것이며 6·25전쟁 발발 직후 개별보고서의 형태에서 책자형태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이중 이번 발표에서 발표자가 특징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중공군 포로신문관에 관한 내용이다. 발표자는 중공군 최초의 포로 싱중산에 관한 내용을 비롯하여 포로신문관의 군별 현황, 이중 일본계 미국인인 '니세이'에 관한 사항. 운산전투, 중공군 소부대야간전투, 백운산일대 전투명령서 등의 번역 등 활동을 분석했다.

참관자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심문과 신문의 차이를 알 수 있었던 발표였다. 발표자는 심문(審問)과 신문(訊問)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발표를 시작하였다. 발표자에 따르면 심문은 '통제'가 없는 임의적인 질문이며 '신문'은 신문자에 대해 통제되는 조건 하에서 첩보를 획득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뜻한다. 발표자는 기존의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포로심문은 포로신문으로 기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www.kci.go.kr

3. 마치며

전반적으로 이번 6 · 25전쟁 제75주년 국제학술회의 「6 · 25전쟁과 아시아-새로운 자료와 연구-」에서는 특히 중국과 일본 측의 연구가 신선했던 학술회의였다. 토론 과정에서도 주제와 분석, 자료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토론에서 나왔던 중국의 포로수용소 운영에 관한 이야기는 당연한 것이었지만 미처 생각의 범위에 없었던 내용이었다. 이 뿐만 아니라 각 발표 이후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이야기와 논의가 오갔다. 특히 본 학술회의의 제목이 '새로운 자료와 연구'이니 만큼 자료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지정 토론자 이후 플로어에서도 많은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6 · 25전쟁에 관한 많은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많은 국내, 국제학술회의들이 연기하거나 축소, 온라인 전환 등을 가지며 그 규모와 내용의 공유가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내 학술회의 뿐만이 아니라 국제 학술회의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도 과거 간헐적으로 개최되었던 6 · 25전쟁 관련 학술회의를 2년 연속 개최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국내학술회의를 진행했으며 2025년에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6 · 25 전쟁에 관한 새로운 자료와 연구들이 진행되고 교류의 장이 더욱 자주 마련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www.kci.go.kr